

다산포럼

환장의 나라



고 세 훈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M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는 MIT 학부(수학)를 마그나 쿨 라우데(차석)로 마치고 하버드에서 물리학 석사를 한 인물이다. 이후 독일로 건너가 관념철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다시 하버드로 돌아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분야는 수학 모델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전망하는 일이었다. 가히 천재학 학자인 데다 인품도 포근하고 겸손해서, 대학원 시절 그의 마르크스주의 학부 강의를 청강하며 다방면으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귀국한 후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가 대학을 완전히 떠나 시카고 증권거래소의 브로커가 됐다는 것이다. 80년대 중엽 그는 미 국가과학재단(NSF)로부터 수십만 불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이후 정국의 향방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했다.

하지만 그가 연구 결과로 제시한 5~6개 전망 중 어느 것도 차후 전개된 필리핀 정치에 합치하는 것이 없었으며, 아마 자신의 학문적 방법론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합틀어 하다가 결국 학계를 떠나고 문득 떠오른 기억이다.

“비합리적인 세상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것보다 재앙을 더 가져오는 것은 없다.” 케인스의 이 말은 인간 삶에 내재된 근본적 불확실성에 온갖 방법론적 기교와 과도한 도식론(formalism)을 차용하여 확실성의 외양을 덧씌우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 월가가 수백 명의 수학자를 동원하여 만들었다는 수많은 파생상품에 사람들이 저마다 올인했다가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았던 일이 불과 몇 년 전이다.

하물며 현대정치 특유의 본래적 불확실성에다 제3세계 정치의 만성적 불안정성이 더해질 때 사정은 어떨겠는가. 한 세대 전에 필리핀 정치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던 인공지능이 과연 지금은 얼마나 신

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묻는 심사가 고약한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웨보르스키의 말대로 민주주의가 결국 불확정성의 제도화에 다름 아니라면, 삶의 복잡성과 상황적 성격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대답은 부정적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불확정적이어서 열려 있어야 할 정치에서 확정적인 결말을 담보해 내려 할 때이다. 자기 정당, 자기 진영의 권력을 확정적으로 (재)정착하려는 시도가 그런 경우일 텐데, 항시적 불안에 시달리는 독재자들이 두려움(동원의) 정치를 확대재생산하는 맥락이 바로 거기에 닿는다.

민주주의라는 최소한의 공적 견제 절차가 부재하니, 사적 동기가 연줄을 통한 갖가지 유착과 함께 정치의 사유화가 그렇게 일상화된다. 그리하여 정치의 공적 영역이 축소되는 만큼 사익 추구자들의 눈에 정치란 그저 이익 탈취를 기다리는 드넓은 황금향(黃金鄕) 정도로 비칠 것이다.

실제로 한국정치의 공적 지분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형편없이 작다. 가령 국민총생산 대비 정부 예산과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그 나라들 평균의 절반도 안 되며,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도 OECD평균의 3분의 1을 밑돈다. 정치의

공적 책무는 홀대받고 공적 정치는 타기의 대상일 망정, 총선을 앞둔 최근의 공천 과정이 보여주듯이, 운동선수·교수·언론인·판검사·연예인 등 웬만한 유명인이면 누구나 정치판을 가웃거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리하여 보통사람도 낯뜨거울 수준의 후학한(厚學漢)들이 정계에 두루 포진해 있다 한들 놀랄 일이 아니거니와, 한국정치의 몰골이 그래서 선연하다.

정치가 사적 욕망들이 각축하는 최종 게임이 될수록 극성을 부리는 것은 완장들의 활겅짓이다. 변절자로 지목된 조국 의원은 감옥에서라도 처형해야(execute!) 하는 경단의 행태가 백주에 공공연히 유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이다. 옛날로 치면 ‘기껏해야 머슴 푼수거나 마름에 지나지 않는’ 완장들은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에게 완장을 부여했던 주인의 권위를 막무가내로 드높여야 한다.

그러나 “지주보다 더 미움 받는 마름의 생명이 결코 오래갈 리 없다. 참다 참다 못한 소작인들은 뭍시 흉년이 든 어느 해 마침내 낮과 곡괭이를 들고 떼 지어 마름의 집을 습격하게 마련”인 것이다.(윤홍길·‘완장’) 이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역사’에 휘둘러 온 오늘의 헬조선은 지금,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가, 아닌가.

기 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성공을 위한 제언



안 기 완
전남대 산림자원학부 교수

책은 중앙집권적 정책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체로 새로운 지방정책들이 생성되고 있는 시대이다. 임업이라고 함은 산림자원을 유지 배양하고 그 가운데 유용한 임산물을 획득하며 그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는 산업이다. 더불어 임업은 지역의 산림자원의 존재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지역성, 독자성이 강한 산업 가운데 하나이다.

타 시도에서도 경험치 없는 지방임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남의 산림정책이야말로 어찌 상징적이지 않나 하겠는가? 특히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에서 나무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점은 지방 산림정책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다 하겠다. 더불어, 2015년 7월 1일 창립한 사단법인 숲속의 전남 거버넌스 민간단체는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데 참여, 숲 부흥운동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의는 많다 하겠으나 그 한계점도 있다고 본다. 즉, 전남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른 차별화 된 전남의 지역적 성격(도시, 해

안, 농산촌마을, 사할 등 지역 전통성 고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2015년 추진한 숲속의 전남 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만 추진되었다는 점, 더불어 숲속의 전남 만들기 에 대한 도민의 이해력 부족과 관심이 아직까지는 결여되었고 반관반민적으로 참여가 되었다는 점, 소득이 되는 6차 임업의 실행 및 산림창업 및 인재육성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행되지 못한 점 들은 분명 한계점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미래 성공적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 가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10년 계획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100년 앞을 내다 본 비전의 설정과 기본적 방침, 이에 걸 맞는 계획의 목표 및 역할분담이 고려된 통 큰 계획이 필요하다. 즉, 전남이 추구 하려고 하는 미래 숲에 대한 정책방향과 도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정비 및 보전, 재해, 산림복지, 임업인, 산림문화 대응, 황폐화된 북한산림에 대한 복원을 포함 한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내용

까지도 고민하여야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책임과 봉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조직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그 단체가 2015년 7월에 창립된 (사)숲속의 전남이지만 이제 막 출발한 마라톤 선수처럼 아직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민간단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 파트너십의 숲속의 전남 협의회 및 시군 협의회와 지원, 그리고 회원자격으로 도민, 임업인, NGO, NPO 단체의 참여,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기업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전남 조례에 전남 산림수원세, 산림환경세(가칭) 신설하여 관의 예산차원에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수행이 아닌 민간 독자적인 차원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 방안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100년 후, 숲과 도민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한 숲 쉬는 숲을 만들기 위해선 분명 현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의 시작은 매우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위대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도민의 열정과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

정춘 특·특

더 큰 이상을 위해



정 재 익
목포대 사학과 4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는 삼국시대 역사와 관련된 만화책을 사주셨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에 큰 매력을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전성기를 맞아 만주벌판을 호령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에 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고구려의 기마대는, 나로 하여금 고구려의 강인하던 무용을 느끼게 해주고 동시에 한민족의 위대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때부터 나는 역사학자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 같다. 물론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정래희망도 가졌지만, 역사에 대한 흥미는 때면 버리지 않았다.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역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특히 삼국시대의 역사는 가장 관심을 가지면서도 더욱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은 부분이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학과에 입학, 이제 역사를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동만지 만화 삼국지’라는 책을 사주면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하도 많이 읽어서 책 겹표지가 찢어지고 바깥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까지 닳았다. 비록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책이지만, 이후 나는 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화에서 그러지는 유비의 인덕은 코믹하게 그려낸 나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국정교과서 파동을 겪은 후에 접한 근현대사는 나로 하여금 미약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사명을 갖게 해주었다. 이와 함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아직까지도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실을 역사라는 범주에 포함시키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깊게 생각해 보았다. 힘없는 사람들이 맘 편히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없는 힘을 모아서 이룩한 역사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상황을 느꼈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면 힘을 쓰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이렇게 적어보니 나에게는 어머니가 역사책을 사주신 것, 국정교과서 파동, 근현대사 관련 팟캐스트 방송을 들은 것,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은 것 등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러 계기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역사에 대한 나의 관심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역사라는 학문의 벽, 그리고 하나는 그 벽 앞에서 서서 몇 년째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나. 역사라는 학문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 조건이다. 그 조건을 수용하고 안하고

는 나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벽을 오르려는 현실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신입생 때 공부부 거는 포기하였던 것, 망치를 들고 베를린 장벽 부수듯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어느 정도 각오를 다졌다. 내가 여태까지 바라봐 온 벽을 오르는 것, 즉 현재 내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겨내어 내가 원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원한다. 남들보다 15배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는 역사를 보면 그 노력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졸업과 취업의 기로에 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스스로도 여태까지의 나 자신이 부끄럽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재의 나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나는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되도록 나 스스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다. 현재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잡아보니 미래의 나 자신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기대된다. 긴 시간이 흐른 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누군기가 확인하기 위해이라도 마음가짐을 확실히 잡고 노력해야겠다.

社 說

국민의당 비례대표 참신성으로 승부해야

국민의당이 뒷받침 광주·전남의 4·13총선 후보를 대부분 확정했다. 결과는 ‘현역 불패’였다. 광주 8개 선거구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5명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애초 공천에서 배제돼 백의총근하기로 결정한 임내현 의원이 유일한 탈락자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광주에서는 현역의원들이 전멸했다. 당 안팎에서 수도권 출마 요구를 받았던 5선의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서울에 단수공천됐다. 3선의 김동철 의원은 광산갑 경선을 여유 있게 통과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동남부에서 단수공천됐다. 장병완 의원은 동남갑에서 결선투표 시행 여부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 끝에 후보로 결정됐으며 권은희 의원은 광산을 후보로 선출되면서 본선에 진출했다. 원외 인사로는 북갑 김경진 후보, 서갑 송기석 후보, 북을 최정환 후보가 나선다. 전남에서는 박지원(목포) 의원과 주승용(여수) 최고위원이 단수공천됐다. 황주홍 의원은 선거구 조정으로 고

흥·보성·장흥·강진이 합쳐지면서 김승남 의원과 ‘현역 의원 경선’ 끝에 공천을 받았다. 최근 입당한 박준영 전남 지사는 영암·무안·신안에서 단수공천됐다. 나머지 8개 선거구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이제 관심은 비례대표 후보에 쏠린다. 국민의당은 오는 21일까지 후보자면접이 끝나면 비례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30명의 명단을 추천 뒤 최고위의 결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후보자와 순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전문철 공천관리위원장 장영철이 불거져 당이 술렁이고 있다. 비례대표 선정을 둘러싼 안철수-천정배 두 대표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신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이다. 행여 자기가 사람 삼기에 급급하다가는 총선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친문’으로 채워진 더민주, 패권 정치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총선 공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민주 는 21일까지 호남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마쳤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더민주 공천은 ‘친노(친 노무현)의 퇴진과 ‘친문(친 문재인)의 포진으로 집약된다. 반면 당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인 ‘정세균계’는 몰락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 측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친노 좌경적으로 문 전 대표와는 결끄러웠던 이해찬 의원과 막말 강경파인 정경래 의원이 원천배제됐다. 유인태·신기남·노영민 의원 등 친노 중진들도 이르지런 이유로 탈락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김경협·전해철·윤호중·박남춘·홍영표·김태연 의원 등은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티켓을 거머쥐었다.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광주 서

울), 오기형(서울 도봉) 후보를 비롯 해 이용빈(광주 광산갑), 우윤근(광양·곡성·구례) 후보 등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의 대선 경쟁자들의 손발을 묶는 동시에 순조로운 대권기도 기반 구축을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지금까지 더민주의 공천 흐름을 보면 또 다른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친문 신주류’ 등장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이런 분열의 근원지인 ‘패권 정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더민주 스스로도 특정 계파의 전횡이 있을 경우 또다시 지긋지긋한 내용과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처음부터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심각한 양상을 했던 김경협·전해철·윤호중·박남춘·홍영표·김태연 의원 등은 여의도 재입성을 위한 티켓을 거머쥐었다.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광주 서

無 等 鼓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다. 유년시절을 보내던 시절에서는 물동이를 이거나 물지게를 지고 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물의 긴급과 빨래를 하는 마을 생터는 아낙들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어느 마을 처럼 1980년대 우물 자리에 펌프가 설치되고 집집마다 상수도가 연결된 후 예전처럼 물길은 풍경은 사라졌다.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에 자리한 담물샘은 ‘나눔의 샘’으로 알려져 있다. 본래 샘은 해주 오씨 고택인 ‘쌍산재’ (雙山齋) 안마당에 있었다. 하지만 150여

1000년 이상의 역사를 헤아리는 상사마을은 전국 최장수 마을로도 유명하다. 주민들은 당물 샘물을 건강 비결로 꼽는다. 실제로 고려대 예방의학 물의 긴급과 빨래를 하는 마을 생터는 아낙들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어느 마을 처럼 1980년대 우물 자리에 펌프가 설치되고 집집마다 상수도가 연결된 후 예전처럼 물길은 풍경은 사라졌다. 지금은 마을 뒷산에 상수원이 마련돼 있다. 본래 샘은 해주 오씨 고택인 ‘쌍산재’ (雙山齋) 안마당에 있었다. 하지만 150여

이용도가 떨어졌지만 외지인들이 물을 뜨러 많이 찾아온다. 그리고 한다.

년 전, 마을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 샘물을 길어가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시자’라며 담장을 샘 안쪽으로 들여왔었다. 누구나 스스럽없이 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운조루의 나눔 정신이 ‘타인능해’(他人能解=누구나 쌀을 퍼갈 수 있다)라면, 쌍산재는 ‘장차수복 이화공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앞으로(將此) 먼가(漸) 같이(公) 나누자(分)’라는 의미이다. 물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 수 있겠다.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예전에는 ‘물 쓰듯 한다’라는 속담처럼 흔하디흔한 것이 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주고 물을 사마시는 세상으로 변했다. 이상 이번 등으로 인해 물의 소중함도 더욱 중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난스러운 가뭄 탓에 물 부족으로 농민들이 애로를 겪기도 했다. 갈수록 인심이 각박해져 가는 요즘, 이웃들과 샘물을 나눠 마신 담물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